

신중호's Prudent Watcher

BEST EDGE

고압경제 시대의 투자처는?

Investment Edge

지난 14일 옐런 의장은 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 하나를 던졌다. 고압경제(high-pressure economy), 강한 총수요가 유지되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상태를 용인하겠다는 메시지였다. ECB의 Tapering 이슈, BOJ의 장단기금리차 타겟, FRB(옐런의장)의 고압경제에 이르기 까지 Big3 중앙은행들이 던지는 공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인플레이 유발이다. 장기채의 매력을 떨어뜨려 금리차확대를 유발하고 대출성장을 유인하려 한다. 즉, QE에 의한 '돈의 양'의 시대에서 돈이 도는 '돈의 속도'로의 전환이다. 돈이 돌면 인플레이는 강해진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인플레이션 헷지이다. 달러약세와 금리하방경직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본 Short paper에선 자산배분 차원(국가선택)에서 보자. 그 동안 EM경제가 성장대비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돈이 흘러가지 않아서 이다. 돈이 흘러가면 성장이 나올 국가에 투자하자.

해외투자(EM)는 FX방향이니, 한국인 투자자라면 이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통화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유발국면에서 한국원화 대비 강세를 보인다(성장률의 함수도 동일). 고압경제시대, 인도와 인니 투자가 선택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M통화 강해지면(달러화가 약세 되면), 한국원화대비 인도, 인니 통화는 강해진다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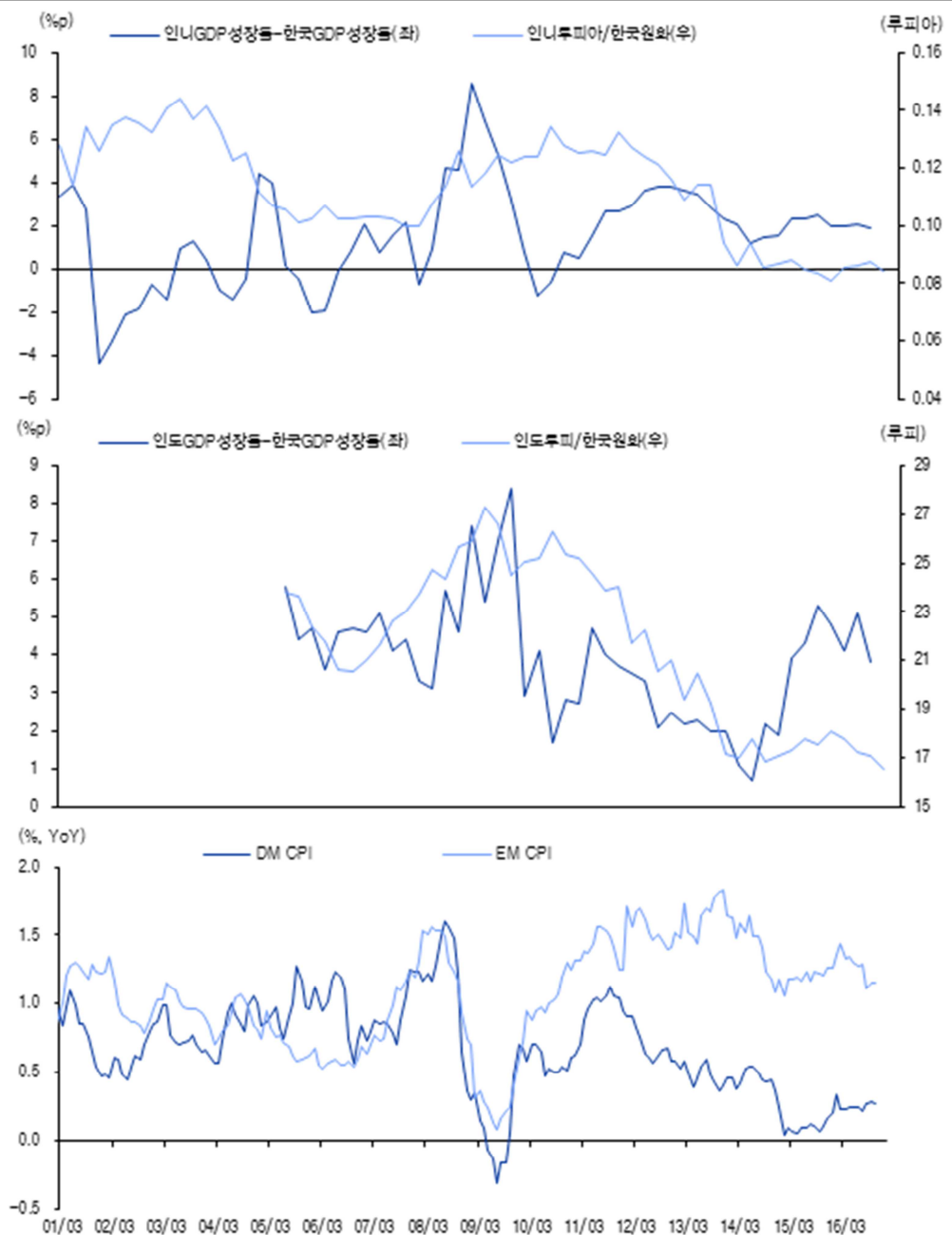
Strategy

신중호

02. 3779-8447

jh.shin@ebestsec.co.kr

그림4 인도, 인도네시아의 상대성장률과 KRW대비 INR, IDR 추이



주: DM CPI(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호주, 스웨덴, 스위스), EM CPI(중국, 한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브라질, 멕시코), 인도GDP, 2014년 4분기 이후로는 개정된 GDP방식을 이용
자료: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신중호)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분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